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창립선언문

우리 시대의 최대과제는 평화와 통일이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해 우리 당대에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여 우리 민족 성원 모두가 건강한 평화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창립한다.

우리는 모든 민족민주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의 귀중한 역사적 성과와 경험을 계승하면서 우리의 평화·통일 운동의 역량을 모으기 위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와 『새로운 평화운동 대중단체(준비위)』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새로운 기치를 세운다.

우리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사명을 느끼고, 깨닫고, 생각한다. 인류는 전쟁에서 평화로, 우리 민족은 분단에서 통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겨레는 지난 세기 고통의 역사에서 새로운 세기 번영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통일염원이 가로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핵 분쟁 무역 분쟁으로 어느 순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모를 급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일하고, 이룰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 땅을 파괴하고 우리 문화를 더럽히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마침내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우리 땅 우리 겨레를 둘러싼 모든 전쟁추동세력의 음모를 저지하고 평화애호대중의 의지를 결집하여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군사비용 확대를 복지비용 확대로, 군사부패문화를 평화생명문화로 전화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참다운 민족자주를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중의 의지와 역량을 끌어안아 범민족적 조직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운동방식, 새로운 사업내용을 개발하여 각계각층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참여하는 민주적 대중적 평화·통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 공부하고, 더불어 토의하고, 더불어 노력하여 우리의 목표를 앞당길 것이다. 우리는 특정계층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생활인 계층에서, 특정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한반도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운동이 발전되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그럴 때에만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는 우리는 현재의 전쟁구조가 야기하고 있는 새운, 생활, 생산의 질곡을 타파해 나가고 각계각층 각지에서 운동의 성과를 하나하나 성취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사람을 죽이고 겨레를 갈라놓는 전쟁과 분단은 하루속히 끝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민족사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가슴 벅찬

그 길로! 온 인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복지와 번영을 누리는 그 길로!
민족자주통일 만세!
평화군축복지 만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만세!

통일염원 50년 6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약칭 평통사) 창립회원 일동